

# 짧고 감동적인 편지로 엮는 '가족의 사랑'

## '가족해체' 시대 뛰어넘는 훈훈함 돋보여

짧은 편지 형식으로 가족간의 사랑을 전하는 책들이 다양한 형태로 출간되고 있다. 아버지가 아들에게, 어머니가 딸에게 보내는 충고의 편지는 물론 자식들이 부모에게 쓴 각각 각색의 편지들도 개성적인 기획으로 엮여져나와 잔잔한 감동을 준다.

《엄마에게 쓴 짧은 편지》(샘터)와 《아버지 어머니! 비가 와요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...》(책만드는 집), 《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충고》(을유문화사) 등은 '가족해체' 시대의 삭막한 일상을 귀퉁이부터 무너뜨리는 '힘센 온기'를 품은 책들이다.

### 100자로 압축한 어머니 사랑

먼저 《엄마에게 쓴 짧은 편지》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복잡다단한 단상들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인 '어머니'라는 소재를 100자 안팎의 짧은 편지글로 압축하고 있어 이채를 띤다. 지난 94년 11월부터 월간지 《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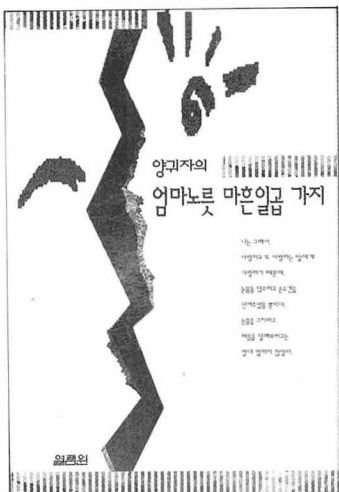
아버지, 어머니가 아들 딸에게 보내는 충고의 편지는 물론 자식들이 부모에게 쓴 각각각색의 편지들도 개성적인 기획으로 엮여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. '가족해체' 시대의 삭막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'힘센 온기'를 지닌 이 책들은,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우울한 사건들이 이 시대 가족의 모습의 전부일 수는 없음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.

터)는 '어머니에게 드리는 짧은 편지 보내기 운동'을 펼쳐왔다. 응모자격의 제한 없이 편지글을 모집해 채택된 원고를 게재한 뒤 상품으로 실반지를 우송했는데, 전국적으로 예상

### 화제의 책

## 출산과 육아의 생생한 체험 기록

### 양귀자 지음 《엄마노릇 마흔일곱가지》



아이들을 낳아본 여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. 그저 놀랍고 신비할 뿐이어서 이루 다 표현해 낼 재간이 없다고. 그래서 생명의 신비 앞에 거의 말을 잊거나, 반대로 '왕수다'

가 되어버리곤 한다.

작가 양귀자는 후자에 든다. 그의 책 《엄마노릇 마흔일곱가지》는 지난 82년 딸 은우를 얻고부터 중학생이 된 지금까지 엄마로서 겪고 지켜보며 느낀 감정을 숨김없이 기록한 '왕수다'의 장이다.

작가는 출산 당시의 체험을 "내가 그런 일을 해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. 막 상면한 아이만 생각하면 흥분되어 어쩔 수가 없었다"고 적고 있다. 아이를 키우면서는 아이를 통해 자신의 유년기를 다시 겪는 착각에 들기도 하고, 그 아이가 커서 "더이상 내 일기장을 훑쳐보지 말라"고 문을 걸어잠글 땐 눈물까지 글썽이며 속상해 한다.

모르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수다일지라도 아이를 직접 낳고 길러본 '엄마'들에겐 그들 사이에서만 소용되는 '방언' 처럼 그저 정겹고 구절구절 공감가는 '이색' 산문집이다. 열림원/A5신/216면/5500원



밖의 호응이 일었다. 그 쇄도해온 편지들을 선별해 한 권의 책으로 펴낸 것.

"엄니!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오신다면 서슴없이 대답하겠습니다. '울 엄니 발톱 깎아드릴 때입니다.' - 전병운(38세, 인천 북구)"

"농사일로 어머니의 손톱은 닳아서 자랄 새가 없고, 손바닥은 모래밭같이 거칠어 가려운 곳이 있으면 어머니의 손바닥을 빌렸지요. 지금은 그 거친 손이 서러워 목이 메어옵니다.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이 되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. - 정점희(24세, 경북 선산)"

이 책에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쓴 감동 어린 편지들 외에 유명인들의 글도 함께 수록돼 읽는 재미를 더한다. "엄마와 구슬치기를 하였지요? 그렇게 착한 엄마도 구슬치기를 할 때는 아주 때쟁이셨지요? 나중에는 다 주시면서..." 하는 피천득 시인의 글을 비롯해 이청준, 설창수, 최인호, 정채봉, 이해인, 문정희, 유경환 등의 문인들과 이종상, 승효상, 최종태, 주돈식, 주정일, 박수동, 배창호, 배현성, 최불암, 문경은, 김유택 등 각계 인사의 글이 200여 편의 편지 사이사이에 '잘 숨어' 있다.

### 고교생이 쓴 '부모님 전상서'

한편 《아버지 어머니! 비가 와요,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...》는 남녀 고교생 422명이 부모님에게 보낸 짧은 편지들을 신임고 교사 권달용씨가 엮고 유안진씨가 감수한 책이다. 무기명으로 학년과 성별만 밝혀 수록한 이 편지들은 사춘기 특유의 발랄하고 솔직한 심경들

을 숨김없이 드러내보인다.

"'알았어, 안돼'밖에 하실 말씀이 없나요?" "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" "엄마 눈치 안 보고 거짓말하지 않게 해줘요" "친구들을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지 말아주세요" 등 부모님께 직접 털어놓을 수 없었던 요구·시정사항 외에도, "엄마의 환약봉투만 보면 눈물이 나오요" "이젠 엄마를 이해할 수 있어요" "어머니의 장한 딸이 되겠어요" "힘이 드셔도 조금만 기다리세요" 등 가슴 뭉클한 내용의 편지들도 다수 실려 있다.

또 "엄마 아빠, 제발 싸우지 마세요" "아빠, 작은아빠랑 화해하세요" 등 어른스러운 당부의 내용도 있어 때묻지 않은 눈에 비친 기성세대의 모습을 짐작하게 한다.

이 두 권의 책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부치는 편지들을 모았다면,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'처세술'의 총목록이라 할 수 있는 《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충고》도 나와 있다.

영국 정치가 체스터필드가 네덜란드 대사로 있으면서 고국에 있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발췌한 이 책은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아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태도를 독특한 안목으로 조목조목 짚어주고 있다. 그중에서도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대목은 "자기 자신의 의견을 가지"라는 것, 그리고 "부드러운 언행과 굳센 의지가 열쇠"라는 것이다.

그 밖에 딸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충고를 엮은 책으로 미국의 사업가 스펠먼의 《그래, 너는 엄마처럼 살지는 말아라》(우연기획)도 나란히 출간됐다.

—한 강 기자